

2014 수능의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 분류체계에 대한 제언: 교육과정기반 문항 분석을 중심으로

이병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Lee, Byeong Cheon. (2013).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the CSAT categorization framework with a focus on item analysis. *Modern English Education* 14(1), 267-2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the way of 2014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ategorization framework designed for distinguishing the domains of practical English(PE) and basic academic English(BAE) which are key concepts for the both the A and B-type differential English test in Korea.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264 test items from the academic year of 2005 to 2012 focusing on reading domain test items.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ratio of practical English to basic academic English is one to seven, and that this severe disequilibrium originated from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the framework has only one criterion, textual material, for distinguishing the concept of PE and BAE with the exclusion of two other criteria, topics and situations; and second, the sub-domains affiliated to both PE and BAE categories are not clearly classifie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T items and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s well as the framework, suggests three ideas: first, 'topic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s essential elements in the categorization of PE and BAE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have the textual materials the only criterion; second, 'situation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s well as international English test should also be considered; and third, more detailed and supplementary categorizations are needed to clarify which test items are incorporated into which sub-domains. In order to improve the methodology of the framework operation, several suggestions are provided.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suggested for reaching a high level of applicability in the framework for the 2014 CSAT system.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practical English/basic academic English/
대학수학능력시험/실용영어/기초학술영어]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4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영역은 A형과 B형 두 개의 검사지로 구성되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공통목적과 아울러 A형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용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B형은 대학에서 학업 하는데 필요한 기초 학술 영어 활용 능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측정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 2014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B형은 현재의 수능과 성격과 수준이 비슷하면서 기초학술문 중심의 대화(담화)와 지문, A형은 현재의 수능보다 쉬우면서 실용영어중심의 대화(담화)와 지문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개념이 처음으로 국가고시에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60여만명의 수험생뿐만 아니라, 시험 출제진, 교재개발자, 영어전문가와 영어교사 등에게는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영역의 명시적인 범주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기존의 국가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a, 2007b;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11b)에서도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를 해당하는 ‘일상생활 과 일반적인 화제 및 학문적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는 능력’ 혹은 ‘평이한 실용적 정보’와 ‘평이한 학술적 정보’를 골고루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수능에서 분류의 체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각 영역에 따른 명시적인 범주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교재개발이나 영어평가 및 교수·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2014 수능 체제에 따라 전국 시·도 영어학력평가, 전국단위의 성취도평가뿐 아니라 수능 관련 EBS를 포함한 교재 개발 시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를 위한 분류체계의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014 수능체제에서는 이미 실용과 기초학술영역과 그 하위영역을 국가교육과정의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범주화하였고 이를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a). 이 체계는 앞으로 2014 수능 관련 문항 제작 혹은 교재 개발 및 영어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 분류체계의 적합성에 대한 분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7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하여 수능에 응시하는 2013년 올해는 2014 시험체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급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범주화에 대한 현재의 소재 중심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탐색하고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능체제가 시작된 2005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대상으로 현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류체계의 적합성을 탐색해 본다. 먼저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비율의 불균형이 있다면 문항 지문의 성격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2014 수준별 수능에서의 실용과 기초학술영어의 분류체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a)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 문항은 대부분 실용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듣기 문항을 제외하고 실용과 기초학술영어를 모두 다루는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I.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

2014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체제, 그리고 출제 범위와 평가목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에 따른 과목별 문항 개발 및 시행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a)이며, 아래의 내용은 영어과 2014 시험체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실용과 기초학술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시험의 성격과 체제 및 그 범위를 기술하고, 본 시험에서 실용과 기초학술영어 분류의 근간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소재를 명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문항 분석 과정 및 결과가 기술된 IV장에서 VII장의 연계성 차원에서, 본 시험과 교육과정에서 혼용되고 있는 소재(textual material)과 주제(topic)의 개념을 명시한다.

1. 시험의 성격 및 체제

2014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 중 영어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구성된 영어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따라 수준별 영어 A형 또는 B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A형은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용 영어 활용 능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셋째, B형은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학업 하는데 필요한 기초 학술 영어 활용 능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수준별 영어 시험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준별 영어 시험의 평가 목표와 출제 범위를 다음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a, p. 41).

표 1
수준별 영어 시험의 평가 목표 및 출제 범위

구 분	A형	B형
평가 목표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

대상자	실용 영어 능력 평가를 필요로 하는 고 3 학생	기초학술 영어능력 평가를 필요로 하는 고 3 학생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학술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 학술과 관련된 소재나 내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
출제 범위 (현행 교육과정과 연계)	영어, 영어I	영어II, 영어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회화
출제 범위 (2011 개정 교육과정 연계)	실용 영어I, 실용 영어II, 실용 영어 회화,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I, 영어II,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수준별 시험의 평가 목표와 출제 범위의 핵심이 되는 개념은 실용과 기초학술영어이며 이는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수준별 시험 A형과 B형에서의 실용과 기초학술영어의 범위의 차별화는 두 시험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실용과 기초학술영어가 A형과 B형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2. 실용과 기초학술영어의 범위

영어영역 출제범위는 영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하되 A형은 실용영어 중심으로, B형은 기존 수능 시험의 범위 정도로 출제하며, A형은 영어, 영어 I 과목에서 그리고 B형은 영어II, 영어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 과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과목에 근거하되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

또한 A/B형의 실용과 기초학술 영역의 출제 비율은, A형은 듣기에서는 실용 100%, 읽기에서는 실용 50-60%와 기초학술 40-50%를 출제한다. B형 듣기에서는 실용 70-80%와 기초학술 20-30%, 읽기에서는 실용 40-50%, 기초학술 50-60%를 출제한다.

다음은 본 시험에서 실용과 기초학술영어 구분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소재에 대한 내용이다.

3. 교육과정에서의 소재 분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그리고 평가내용과 평가요소와 부합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소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으며, 소재의 항목을 19개로 분류(교육과학기술부, 2008, p. 41)하고 있으므로, 본 소재 분류가 실용과 기초학술의 분류에 있어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되,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

1. 개인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8.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9. 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1.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2. 공중도덕, 예절,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3.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4.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5.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근로, 진로 문제 등 개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7.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의를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8.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9. 애국심, 통일 및 안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p. 41)

본 절에서 나타난 소재의 개념은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2014 시험에서 주제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소재와 주제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여 본 연구의 문항 분석 과정의 준거로 한다.

4. 교육과정에서의 소재와 주제의 개념

2014 수준별 수능시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교육과정의 소재 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의 소재 분류는 주제와 화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영어와 학문적 기반영어를 분류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대화나 담화의 분류 혹은 글의 분류에 있어 ‘주제’ 혹은 ‘소재’의

개념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대화나 담화 혹은 글의 분류를 위하여 ‘주제’와 ‘소재’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 소재와 주제의 분류는 구분된다. 소재의 개념은 ‘(문인이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다루는 사실이나 사물’이며 주제란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나 내용’을 의미한다. 주제(topics)란 담화에서 말해지거나 쓰여 진 것을 의미하나 형태와 달리 의미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매우 어렵다(Brown & Yule, 1983). 하지만 우리 국가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a)에서는 주제의 의미를 ‘주제란 지문 및 담화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p. 39)’로 규정하여 ‘소재’와 구분하여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한 나무와 약한 나무’라는 소재를 통하여 ‘부러지기 쉽지만 오래 견디는 힘을 가진 약한 나무의 교훈’이라는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III.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 개념에 대한 문헌 연구

실용과 기초학술영어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영어평가를 분류한 국내외 연구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영어평가는 듣기와 읽기 혹은 말하기와 쓰기 등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거나(TOEFL, TOEIC, IELTS, OPI), 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력 측정(IELTS) 등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회적 응력이나 업무능력 혹은 대학과정 이수능력 등을 측정하는 국제적 영어평가 등도 문항의 일부만 샘플로 제시되고, 문항을 살펴보면 실용영어와 학술영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용과 학술영어의 개념 및 준거는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본 연구의 문헌 연구로서는 연계성이 약하다. 실용과 학술영어의 개념을 담은 영어평가연구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Cummins(1981)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과 학문인지적 언어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BICS)이란 그 명칭에서 나타난 그대로 일상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의미한다. 즉,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영어모국어 화자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기본적인 영어의사소통능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적 상황이란 학교 운동장이나 식당, 학교 버스에서의 일상적 대화, 그리고 함께 스포츠를 하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 전화상의 일상 대화 상황에서 일상적 화제에 관하여 듣고 말하는 능력이다. 즉, 다양한 일상생활상황에서 쉽게 접하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화제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영어회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학문인지적 언어능력(CALP)은 영어를 사용한 학업 능력을 의미하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하는 정규 미국인반 수업을 받는데 필요한 영어 학업능력을 지칭한다. 언어 내용적 면에서는 해당 수업의 어휘와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비교, 분류, 종합, 평가, 추론 능력을 요구한다. 영어 학업능력을 기본의사소통영어와 분리한 이유는 영어학업능력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과는 의사소통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주제의 추상성 및 필요한 언어지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어학업능력에서 요구되는 언어와 다루는 주제는 상당부분 추상적이며, 요구하는 문장 해독력의 정도가 높고, 복잡한 문자담화(텍스트)를 이해하고 쓰는 능력을 요구한다.

Cummins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과 학문인지적 언어능력 개념에 사회적 영어능력 개념을 도입한 Colorado(2007)는 영어 능력을 ‘사회적영어(social English)’와 ‘학업영어(academic English)’로 나누었다. ‘사회적 영어’란 구두나 문자 형태로 일상 생활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어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놀이터나 학교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간에 사용하는 생활영어, 면대면으로 친구들과간에 자유롭게 하는 대화에 쓰이는 영어, 또는 식품가게에 가서 쇼핑품목을 읽을 때 사용하는 영어를 말한다. 사회적영어에 능통한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업영어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회적 영어’와 달리 ‘학업영어’란 영어로 일반 교과 수업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영어이기 때문에 사회적영어 보다는 더 학습하기 어렵고 복잡한 영어를 말한다. 학업 영어가 사회적영어와 구별되는 점은 학업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대화나 담화 중 문법적 혹은 어문 구조의 복잡성과 깊이, 주제의 추상성, 대화나 담화의 길이와 다양성, 그리고 학습전략과 논술적 사고력을 적용하는 능력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실용영어와 대비되는 학술영어의 개념은 학습목적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Widdowson(1998)의 특수목적에 위한 영어(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나 일반목적에 위한 영어(EGP:English for General Purpose) 그리고 Johns와 Dudley-Evans(1991)의 다음과 같은 세부 분류가 이에 해당한다. Johns와 Dudley-Evans는 영어학습을 기능별 및 영역별로 구분했는데, 구어를 토대로 한 이해기능 학습과 표현기능 학습, 그리고 문어를 토대로 한 이해학습(읽기영역)과 표현학습(쓰기영역)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영어 학습을 하는 목적을 크게 일반목적에 위한 영어(EGP), 특수목적에 위한 영어(ESP), 사회적목적에 위한 영어(ESP)으로 구분하고 각 목적에 따라 구어와 문어의 기능적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먼저, 사회적 목적의 SP는 일상 및 사회생활 상황에서의 영어이며, 일반 목적은 학교 시험 등의 일반 영어학습 목적을 의미한다. 특수목적이란 의사, 비행기 조종사, 호텔 직원 등의 직업과 관련된다. 특수목적은 세부적으로 직업을 위한 영어(EOP: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 취업을 위한 영어(EVO:English for Vocational Purposes), 전문적인 직업을 위한 영어(EPP:English for Professional Purposes),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 (EA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등으로 구분되어 주로 직업이나 전문직업분야, 및 학업수행목적에서 필요한 영어를 의미한다. 이 중 내용 중심(theme-based)의 학술영어인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는 특정학업을 위한 영어(ESAP:English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s)와 일반 학술목적을 위한 영어(EGAP:English for General Academic Purposes)로 구분된다.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EAP) 중 특수학업목적 영어(ESAP)는 약품, 엔지니어링, 경제 분야와 같은 특수한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 영어이며, 일반 학술목적 영어(EGAP)는 대학과 같은 학문적인 기관에서의 일반학업영어를 의미한다.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그 범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문적인 학문인 지적 언어능력과 특수목적을 위한 영어, 일반 학술목적을 위한 영어 관련 문헌들과 일반목적용을 위한 영어 및 학술영어를 위한 영어의 영역에 관한 연구(Ibrahim, 2010; Zohrabi, 2010)를 종합하여 실용영어와 차별되는 학술영어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 내용적 면에서 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공학, 예술 등으로 일상생활 영어와 차별된다. 둘째, 언어 내용적 면에서 사용하는 어휘와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비교, 분류, 종합, 평가, 추론을 위한 높은 학습전략을 요구한다. 셋째, 의사소통상황과 과제(task)가 다르고, 주제의 추상성 및 필요한 언어지식의 정도가 다르다. 즉, 주제는 비교적 추상적이며, 복잡한 문자담화(텍스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높은 문장 해독력을 요구한다. 넷째, 상대방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문어휘, 특수어휘, 문화적 혹은 관련 학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탈맥락적(context-reduced) 이해를 요구하며 언어 사용역(register)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술영어의 개념이 실용영어와 비교하여 차별화됨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에서 요구하는 ‘기초학술영어’의 개념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b) 기초학술에 대한 개념은 전문적인 학술영어의 개념을 참조로 하되,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즉 대학의 전공 과정의 교과 내용이나 학술 내용이 아닌 대학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학술영어이며 그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IV. 연구 방법

1. 분석 준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의 준거는 현재 소재 중심의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현재 소재 중심의 분류체계는 교육과정상의 소재 항목을 수준별 영어 시험에 적용하여, 소재를 평가 목표와 부합하도록 재분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소재를 범주화함으로써 출제위원들이 지문을 선별하고, 선제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형과 B형의 검사지가 상보성 원칙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장경숙, 정규태, 이병천, 2011)을 2014 수능 체제의 수준별 영어 시험에 반영하고자, 수준별 영어 시험의 내용(소재) 영역을 실용 영역과 내용 영역으로 설정한 현 분류체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b, p. 48)는 표 2와 같다.

표 2
수준별 영어 시험의 실용과 기초학술영어 분류체계

영역	중분류	소분류
실용	일상	교통, 통신, 쇼핑, 주거, 식당, 병원, 미용실 등 일상에 관한 내용
	여가	교통편 예약, 기차, 공연, 전시회, 스포츠, 취미, 요리, 호텔, 공공장소 등 여행. 여가에 관한 내용
	가정학교	수업, 교우관계, 생일 파티, 졸업, 상담, 과제, 시간표, 도서관, 시험, 성적 등 가정. 학교에 관한 내용
	직업 업무	서식, 문서작성, 채용, 급여, 마케팅, 안내 및 공지, 광고, 매뉴얼 등 직업. 업무에 관한 내용
기초 학술	민주	문화, 공중도덕, 질서의식, 민주시민, 봉사정신, 협동정신 등에 관한 내용
	사회문제	노동, 직업, 진로, 양성 평등, 고령화, 복지,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등에 관한 내용
	문학	예술(음악, 미술, 건축 등), 문학, 인류학, 철학 등에 관한 내용
	과학	과학, 기술, 컴퓨터, 정보통신, 우주, 해양, 환경, 탐험 등에 관한 내용
	일반사회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

현 소재를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에 따른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개념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대로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실용적 목적과 전공 분야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 목적의 영어 추구라는 두 개의 축’이 중심 개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할 때,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조작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실용영어: 개인, 가정, 사회, 문화생활 등 실생활 중심의 소재를 활용한 대화/답화 및 글
- 기초학술영어: 장래의 진로와 전공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소재(인문, 사회, 과학, 문화 등)를 활용한 대화/답화 및 글

2. 분석 대상, 절차 및 방법

대상 문항은 8개년도(2005년부터 2012학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읽기 영역 문항, 각 학년도별 33개 문항씩 총 264개의 문항이다. 대상 문항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대상기출문항을 수집 하였다.

분석 절차는 각 연도별 읽기 영역 33개 문항을 현 소재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제시한 바 그대로 따라 문항별 소재를 표시하였다. 소재 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문항별로 체계에 명기된 소분류가 속한 중분류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각 문항의 제시문에 해당하는 소분류(수업, 생일파티) 표시, 다음으로 소분류가 속한 중영역(가정학교생활)을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분류가 속한 실용과 기초학술영역을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실용과 기초학술영역의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이의 개선 방안 제시이기 때문에, 본 목적에 따라 현 소재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실용과 기초학술영역 분류의 핵심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분류를 동시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경우’란, 분류체계의 소분류는 중분류를 상세화한 것이지만 기초학술영역의 중분류인 일반사회인 경우 그 소분류 범위가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으로 넓기 때문에 소분류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는 중분류와 소분류를 함께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분류체계의 중분류에 ‘일반사회’에 해당하나 경우에 따라 ‘일반사회/교육’ 등으로 분류하였다. 소재만으로 분류한 현 체계에서 재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항에는 ‘재분류 필요성’ 항목에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분석방법에서 기술한다.

각 문항의 분석 방법의 핵심은 현 소재 중심의 분류체계에 대한 ‘재분류 필요성’의 유무 판별 기준 설정에 있다. 읽기 영역의 제시문의 소재나 글의 종류, 분류 영역, 실용 학술 등에서 재분류 필요성이 발견될 때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주제의 실용성이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화제’이다. 일반인들이 비록 소재가 자연, 환경, 교육 등의 글감에 해당하지만, 주제 면에서 볼 때 기초학술로 분류하기는 지극히 학술적인 성격이 약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식적 수준의 일상생활 대화 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상황의 실용성이다. 이는 대화나 담화의 장소, 화자와의 관계, 맥락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상황뿐 아니라 여행이나 여가 등의 상황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¹ ‘교육과정’관련 표시는 표 3의 ‘재 분류 필요성’ 참조하고, 그 근거에 관해서는 제 IV장 참조

셋째, 영역 명세화이다. 이는 소재 중심의 현 분류체계에서 각 영역의 소분류 예시들이 다양한 지문들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이 어느 영역에 속할지 판단하기에 애매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 분류 체계에서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애매성이 나타나는 경우 ‘영역 명세화’, 나머지는 각각 ‘주제의 실용성’과 ‘상황의 실용성’으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 방법의 예시를 아래의 표 3으로 예시한다.

표 3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결과(읽기영역)

문항	소재	글의 종류	분류영역	실용/학술	고려사항	재분류 필요성
18	도서관 카드 사용	설명문	가정/학교	실용	-	-
19	leaf fish 먹이사냥법	설명문	과학/해양	기초학술	-	-
20	문화간 확산 /사회 접촉	설명문	민주/문화	기초학술	-	-
21	시 게재 거절 서신	편지글	직업/업무/안내	실용	-	-
22	인생에 미치는 부모님의 영향	일기/수필	가정/학교	실용	-	-
23	수학자가 되는 길 제언	설명문	일반사회/교육	기초학술	-	-
24	초록환경의 긍정측면	설명문	과학/환경	기초학술	-	-
25	첫 인상의 영향	설명문	일반사회/교육	기초학술	-	-
26	전문인(유명인)들에 대한 우리 편견	설명문	인문/철학	기초학술	일상생활의 인간관계 유지에 관한 내용	주제의 실용성
27	고전음악과 재즈 차이점	설명문	문학/예술	기초학술		
28	라디오 인터뷰	설명문	직업/직무	실용	직장에서의 일화	영역 명세화
29	자동차 도난경보기 사용 제한	논설문	사회문제/ 환경/기술	기초학술	일상생활의 대화 주제	주제의 실용성
30	인조다이어의 활용	설명문	과학/기술	기초학술		
31	남바위-겨울모자 설명	설명문	일상	실용	흔한 사물에 대한 설명	영역 명세화
32	여행보험가입필요	설명문	여가/공지	실용	-	-

33	영웅의 의미	설명문	인문	기초학술	-	-
34	디자인과 스타일링의 차이	설명문	문학/예술	기초학술	-	-
35	인물 설명	설명문/전기문	문학	기초학술	-	-
36	Floppy Barrow 게임 설명	설명문	여가/취미 (스포츠)	실용	-	-
37	친환경개선구축비와 절약	도표 설명문	과학/환경	기초학술	-	-
38	혼자만의 시간과 최상의 아이디어	논설문	과학/철학	기초학술	상식 수준의 내용	주제의 실용성
39	양심, 부모의 윤리교육 필요성	논설문	일반사회/교육	기초학술	-	-
40	신발의 종류, 역사 및 기능	설명문	과학/기술/역사	기초학술	-	-
41	인문학의 개척자	설명문	일반사회/인문	기초학술	-	-
42	기술에 대한 믿음과 부작용 가능성	설명문	과학/기술	기초학술	-	-
43	폭풍우 속의 탐험	문학	문학	기초학술	-	-
44	런던다리 이야기	설명문	사회/역사/지리	기초학술	여행 안내 책자 수준	상황의 실용성
45	아동교육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스포츠 캠프 선택 시 부모의 고려사항	논설문	일반사회/교육	기초학술	육아에 대한 상식 주제	주제의 실용성
46	여행 중 이야기	문학	문학	기초학술	친구의 여행경험담 수준	주제의 실용성
47	여행 중 이야기	문학	문학	기초학술	친구의 여행경험담 수준	주제의 실용성
48	여행 중 이야기	문학	문학	기초학술	친구의 여행경험담 수준	주제의 실용성
49	과일 껍질 섭취에 관한 찬반의견	논설문	과학	기초학술	음식, 건강, 영양 등	주제의 실용성
50	과일 껍질 섭취에 관한 찬반의견	논설문	과학	기초학술	음식, 건강, 영양 등	주제의 실용성

V. 결과 및 논의

1. 문항 분석 결과

2014 수준별 수능을 위한 수준별 영어 시험의 내용(소재) 영역 준거에 따른 현재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8개년도(2005학년도부터 2012학년도)의 수능 읽기 영역의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2005학년도-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결과표

영역	학년도 중분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실용	일상	1	2	1	1	3	1	2	1	12문항	비율
	여가	1	3	2	0	2	0	0	0	8문항	3%
	가정 학교	0	0	2	1	3	1	0	0	7문항	2.6%
	직업 업무	3	0	2	0	0	0	0	1	6문항	2.3%
소계		4	3	6	1	5	1	0	1	21문항	7.9%
기초학술	민주	0	0	3	1	0	0	1	0	5문항	1.9%
	사회문제	0	0	0	0	0	0	0	0	0문항	0%
	문학	12	11	7	8	6	4	6	3	57문항	21.6%
	과학	7	6	9	9	5	6	5	6	53문항	20.1%
	일반사회	9	11	7	13	14	21	19	22	116문항	44%
	소계	28	28	26	31	25	31	31	31	231문항	87.5%
	총계	32	31	32	32	30	32	31	32	252	95.4%

분석 대상 문항은 각 학년도별 33개 문항씩 총 264개의 문항이었으나, 표 4의 총 문항 수는 252개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분석대상 문항지문의 성격상 실용과 기초학술문의 분류체계 중 어느 영역에도 적합하게 분류되기가 곤란하여, 분류의 애매성이 발생하는 경우 문항분석결과표에서는 제외하고, 이를 제 V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학년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실용영어는 21문항으로 약 8%, 그리고 기초학술영어는 231문항으로 약 87.5%로 구성되어 약 1:11의 비율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용영어영역의 중분류에 속하는 일상, 여가, 가정학교, 및 직업 업무 등은 학년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초학술영어영역은 중분류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민주’라는 중분류는 분류체계상 문화, 공중도덕, 질서의식, 민주시민, 봉사정신, 협동정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5문항 즉 1.9%이며, 노동, 직업, 진로, 양성 평등, 고령화, 복지,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사회 문제’라는 중분류는 한 개의 문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포함된 중분류는 문학, 과학, 그리고 일반사회이며, 특히 일반사회(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는 44%, 문학(예술, 문학, 인류학, 철학 등에 관한 내용)은 21%, 그리고 과학(과학, 기술, 컴퓨터, 정보통신, 우주, 해양, 환경, 탐험 등에 관한 내용)이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수능체제에서는 실용적 정보와 일상생활 상황에서의 일반적 주제, 그리고 인문,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의 정보를 담은 기초학술영어를 골고루 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비율이 1:11의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8개년도의 수능 문항이 실용영어보다 기초학술영어 중심으로 출제를 했던지,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으로 ‘2014 수준별 수능을 위한 수준별 영어 시험의 내용(소재) 영역’ 분류가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지침서의 출제원칙과 검토원칙은 문항의 타당성 검증할 때 ‘교육과정과의 적합성’을 명시하고 있고, 검사지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지문 소재가 특정 분야 혹은 특정 종류의 정보에 치우치는 것을 배제하고 있으며, 모든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은 이 지침에 따라 문항을 출제하고 검토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두 번째의 가능성이며, 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2. 논의

실용문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의 문항이 기초학술문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에 따라, 논의의 초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에서 실용문과 기초학술문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국가교육과정이 실용문과 기초학술문을 고루 다루게 하는 사항이 있고, 이에 기초하여 2014 수능의 분류 기준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가 실용문과 기초학술문에 대한 비율에 있어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능 문항 출제의 근간이 되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와 문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실용과 기초학술문을 고루 다루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분류체계에서 ‘소재’만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불균형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실용과 기초학술문에 대한 준거는 소재뿐만 아니라 주제의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었다. 즉, 2014 수준별 수능에서의 실용과 기초학술문의 준거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 체계상의 소재를 분류 준거로 삼았고, 교육과정의 목표나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주제는 2014 수준별 수능 시험의 주요 분류 준거에서 배제되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역시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과 기초학술의 분류 준거에 ‘상황’의 개념이 배제되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도 글이나 대화(담화)에서의 ‘상황’의 중요성이 강조될 뿐 아니라 III장에서 나타난 실용과 학술영어에 관한 영어평가 관련 문헌연구에서도 ‘상황’은 주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문항의 지문 분류에 있어, 소재뿐만 아니라 상황을 중심으로 분류한다면 기초학술문에 속하는 다수의 문항들이 실용문으로 분류된다.

넷째, 2014 수능에서의 실용과 기초학술영어의 준거가 되는 소재 분류에서 소재의 중분류와 소분류들이 상세화되지 않아 문항의 지문이 속할 분류항목을 찾기가 힘들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장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 혹은 자연과학 전반을 모두 포괄하는 ‘과학, 기술, 컴퓨터, 정보통신, 우주, 해양, 환경, 탐험 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소분류에 포함되고, 이 항목은 기초학술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용문 문항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실용과 기초학술문에 대한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 분석결과인 ‘실용과 기초학술문 분류 준거로서의 ‘주제’, 그리고 ‘실용과 기초학술문 분류 준거로서의 상황’, 마지막으로 ‘실용과 기초학술영어 영역의 명세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1) 실용 및 기초학술문에 대한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교육과정의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에 따라 출제된 8개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읽기 영역에서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만, 평가의 환류 효과 등 교수학습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반이 되는 2007 영어과 개정교육과정의 목표가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를 고루 다루고 있는지를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기능통합 교과목인 영어I과 영어II의 학습 목표와 성취기준을 살펴보자. 2014 수준별 수능 영어 A형과 B형에 해당 하는 과목 중 ‘영어I’과 ‘영어II’의 학습 목표 중 정의적 영역과 문화적 면을 제외하면 ‘말과 글’에 해당하는 목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5
영어 I과 영어 II 과목의 학습목표

과목 및 목표	영어 I	영어 II
학습목표	나.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다. 평이한 실용적, 학술적 정보를 읽고 이해한다. 라.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한다.	나.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한다. 라.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화제 및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한다.

요약하면 ‘말이나 글’로 된 정보에 대하여 ‘나’항은 주제 측면에서, ‘라’항은 상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다’항은 실용적 정보와 학술적 정보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즉, 학술적 정보 뿐 아니라 실용적 정보도 함께 다루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읽기에 해당하는 영어 학습의 목표는 ‘일반적 주제나 소재’를 포함하여 정보면에서 볼 때 ‘평이한 실용적 정보’와 ‘평이한 학술적 정보’가 골고루 다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 실용과 기초학술문 분류 준거로서의 ‘주제’

(1) 분류 준거로서의 ‘주제’에 대한 논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고등학교 ‘영어I’ 과목의 목표에 따른 읽기에 해당하는 내용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기사를 읽고 세부사항을 파악한다.
- ② 다양한 주제에 관한 그림, 도표 등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 ③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 ④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문단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한다.
- ⑤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결론을 추론하고 근거를 찾는다.

먼저, 읽기의 성취기준 (1)에서 (5)까지 글의 분류는 ‘주제’ 중심으로 되어 있다. 둘째, 목표에서 나타났듯이 정보의 종류면에서 ‘실용적 정보’와 ‘학술적 정보’로 나누어지고, 성취기준에서 나타났듯이 주제면에서는 ‘일반적 주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어 I’에서 다루는 정보의 종류는 실용적 정보와 학술적 정보 둘 다 포함하고 주제면에서는 일반적 주제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겠다. 정보의 종류와 주제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한 것은 영어과 총괄목표 및 그 하위목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교육인적자원부, 2007a)에서는 영어 교과 총괄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그 하위 목표로는 하위 목표로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 및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p.27).

‘일반적 주제’와 ‘다양한 정보’의 구별은 조작적 정의가 내려진 개념이 아니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서(2007a)에서는 읽기의 소재 범주 ‘간단한 주제’ → ‘일반적 주제’ →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어 점차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거나, 혹은 ‘친숙한 일반적 주제’ → ‘일반적 주제’ → ‘다양한 주제’로 소재의 범주가 확장(p. 113)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주제’ 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고 그 범위가 ‘일상적 주제-친숙한 일반적 주제-일반적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 즉, ‘다양한 주제’라는 개념은 ‘일반적 주제’에서 확장된 개념이어서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 및 ‘신문이나 잡지 기사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영문 텍스트’(p.90), 다양한 시각 자료, 예를 들어 각종 기기의 사용 설명서, 시간표, 또는 각종 도표나 차트, 지도 등 실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문서자료, 비디오, DVD, CD, 뉴스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p.96), 문학 작품, 사설, 신문 기사, 정기 간행물 읽기 자료, 에세이, 읽기 저널, 서평, 영화 비평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p. 187) 등의 설명에서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다양한 주제’란 각종 기기의 사용설명서와 같은 실용영어부터 인문.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학문적 기반에 필요한 영어(p.175)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교육과정의 내용기준에 해당하는 ‘실용적 정보’와 ‘기초학술적 정보’,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함께 묶어 ‘실용적 정보와 기초학술적 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주제’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 때의 전자는 실용영어에 해당하고, 후자는 기초학술영어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수준별 영어B형에 해당하는 영어II, 심화독해와 작문의 목표와 읽기 성취기준의 내용기준은 모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분야의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과정에서는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에 대한 고른 분포를 권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에 대한 주요한 분류 준거 중의 하나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olorado(2007)의 학업영어에서도 사회적 영어 즉 실용영어와 구별할 때, 대화나 담화 중 문법적 혹은 어문 구조의 복잡성과 깊이 등과 함께 주제 추상성의 정도가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김용명(2010) 또한 교육과정의 소재 분류를 응용하여 대화나 담화로 영어평가문항을 구성할 때는 Bachman과 Palmer(1996) 및 Ellis(2003)가 강조한 평가의 실제성(authenticity)를 높이기 위해서 ‘소재’라는 용어 대신에 ‘일상생활 관련 상황과 주제(예. 의식주, 가정생활 등), 학교생활 관련 상황과 주제(예. 수업, 시험, 방과 후 활동 등), 사회생활 관련 상황과 주제(관공서, 상점, 교통, 통신 등), 직장생활 관련 상황과 주제(예. 취업,

승진, 업무 활동 등)’으로 제안하여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p.322). 또한 실용영어와 대비되는 학술영어의 개념은 Widdowson(1998)의 일반목적을 위한 영어 그리고 Johns와 Dudley-Evans(1991)의 학업목적을 위한 영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용 중심(theme-based) 분류이다. 마찬가지로 2014 수준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체제의 A형과 B형 또한 실용, 혹은 대학에서의 전공영역이수에 도움이 되는 학술영어는 그 내용이 차별화된다. 즉, 소재는 유사해도 주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4 수준별 수능의 평가 목표도 A형은 ‘실용 주제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B형은 ‘기초 학술 주제와 관련된 정보’로 분류하고 있음을 보아도 실용영어 분류에서 ‘주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어교육내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수요목 중의 주요한 모델이 소재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상황과 함께 ‘주제’를 중시하는 상황-주제 교수요목(situational-topical syllabus)임을 고려한다면(이흥수, 2011) 교육과정에서의 실용과 학술영어를 고르게 다루면서 ‘주제’를 내용 선정의 주요 분류 준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주제(화제)의 실용성 문항의 예시

주제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실용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문항의 예를 들면 2009학년도 수능 38번 문항으로서, 지문 내용은 강한 나무는 보기에 강하기는 하지만 약한 나무에 비하여 부러지기 쉽다는 소재이며, 오래 견디는 약한 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강한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약하면서도 약함의 장점과 인내를 담은 교육적이고 교훈적 주제를 담고 있다. 본 문항에 대한 주제(화제)의 실용성이란 일반인들이 비록 소재가 자연, 환경, 교육 등의 글감에 해당하지만, 주제면에서 볼 때 기초학술로 분류하기는 지극히 학술적인 성격이 약하며 부모나 초등학교 선생님 혹은 친척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린 학습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의 일상생활 대화 주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문항의 예시는 아래의 표에 제시한다.

표 6
주제(화제)의 실용성 적용 문항(예시)

번호	학년도	문항번호	내용	현재 분류	실용/학술	재분류 필요성
①	2005	42	얼굴 사마귀	과학	기초학술	주제의 실용성
②	2007	29	자동차 보안장치 소음 대책	과학	기초학술	주제의 실용성
③	2007	45	아동 배려를 중시하는 스포츠 캠프	일반사회/교육	기초학술	주제의 실용성

④	2007	46	어려움에서 침착하게 벗어난 이야기	문학	기초학술	주제의 실용성
⑤	2007	49	과일 껍질 섭취에 관한 의견	과학	기초학술	주제의 실용성
⑥	2009	38	강한 나무 약한 나무	일반사회/교육	기초학술	주제의 실용성
⑦	2010	23	습관 고치는 법	일반사회/교육	기초학술	주제의 실용성
⑧	2010	43	가정 교육의 일화	일반사회/교육	기초학술	주제의 실용성

화제란 글이나 대화(담화)에서 여럿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의 이야기거리, 즉 이야기의 주제를 일컬으며,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나 내용으로서 주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주제(화제)의 실용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 화제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다.

먼저 현재 분류로 과학에 속하는 문항지문을 살펴보자. ①번 문항은 사마귀의 위치와 사람의 성격과의 관계를 소재로 한 내용이며 현재의 분류로 기초학술에 속한다. 하지만 주제를 중심으로 보면, 기초학술적인 내용 이라기보다는 사마귀가 얼굴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다소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 화제이다.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인체가 속하는 과학에 포함하여 사람의 얼굴 모습, 얼굴 사마귀 등까지 학술문으로 분류하여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초학술적 주제로 보기보다는 ‘일상생활에 대한 화제의 실용성’으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②번 문항은 자동차 보안 장치 사용으로 인한 사람들의 불편함과 보안장치의 불필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도덕’ 혹은 ‘과학’에 관한 소재이다. 현재의 분류기준을 보면, 문화, ‘공중도덕, 질서의식, 민주시민, 봉사정신, 협동정신 등’에 관한 소재 혹은 ‘과학’에 속하는 소재로 기초학술문의 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비록 소재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공중도덕에 해당하지만 이는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에 해당되어 주제의 실용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⑤번 문항은 과일 껍질을 섭취했을 때 비타민 등의 영양이 있어서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버리게 되는 음식도 줄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상식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분류는 과학과 환경으로 분류되어 기초학술문이 된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상식적 수준의 화제이지 학문성을 가진 지문이라고 분류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분류체계상 일반사회/교육으로 분류되는 문항을 살펴보자. ③번 문항은 기술만 중시하지 말고 아동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는 스포츠캠프를 고르는 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재 분류로서는

일반 사회의 교육 영역에 속하지만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화제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다. ⑥번 문항은 본 절의 서두에서 언급하였고, ⑦번 문항 역시 사람의 손의 사용과 관련된 바람직스럽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손을 쥐었다 폈다 한다든지 혹은 손에 인형을 쥐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습관 고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다. 현재의 분류로는 ‘교육’에 해당하여 역시 기초학술문으로 분류된다. ⑧번 문항은 한 부모의 일화 역시 ⑦번 문항과 동일한 이유로 기초학술문으로 분류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분류체계상 문학으로 분류되는 문항을 살펴보자. ④번 문항은 탐험을 갔을 때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도 차분하게 극복한 이야기로 현재 소재 분류로는 ‘탐험’에 해당하여 기초학술영어로 분류되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 여행을 다녀온 뒤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화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생활 중에서 사물이나 동물 등을 이용한 교훈적 지문들, 교육적 내용이 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초학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벼운 실용적 내용들, 과학이나 환경에 속하는 소재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화(담화)의 주제 등은 화제의 실용성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의 분류로 교육 혹은 문학영역에 속하는 많은 지문들 역시 실용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는 만일 이러한 지문들이 기초학술문으로 분류된다면, 교훈을 담은 전래동화 등도 현재의 분류인 문학 영역의 기초학술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동화가 기초학술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문항 내용을 보면, 문학작품에서 장소나 배경 설명이 제시되는데 일반인들이 일기글에 적을 수 있는 정도의 사실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또한 기초학술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정도의 일반적 화제이기 때문에 화제의 실용성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음식이나 건강 등에 관한 소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대중 매체뿐만 아니라 실용 잡지나 선전용 광고 잡지 등의 글에서 친숙도 높은 평이한 화제라고 할 수 있다. 비타민이라 지방 등의 과학 용어가 포함된다 하여 영양학 혹은 과학 등으로 분류하여 기초학술영어로 범주화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기초학술영어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양학 등 기초적 학문성을 띄고 있어야 할 것이다.

3) 실용과 기초학술문 분류 준거로서의 ‘상황’

(1) 분류 준거로서의 ‘상황’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과 문헌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개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영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황을 소재라는 하나의 범주 속에서 범주화하는 데서 분류의 애매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014 수준별 수능을 위한 수준별 영어 시험은 현재 내용(소재) 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한 분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목표와 성취기준은 교육과정해설서 전반에 걸쳐 소재뿐만 아니라 상황을 중요한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글 혹은 대화(담화)의 상황에 대한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도 의사소통 상황 등을 고려(p.8)
- 성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취 기준에 상황과 화제(topics)의 개념을 도입(p.14)
- 소재를 선택할 때는 주제, 상황, 과업 등을 고려(p.28)
- 의사소통하는 연습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전략 사용(p.34)
- 의사소통에서 말이나 글은 상황에 맞게 조절(p.84)
- 의사소통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시간, 장소, 맥락) 중심(p.98)
- 언어학습과 의사소통은 상황 중심(p.99)
-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화제 및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p.111)
- 상황이란 대화의 장소, 화자와의 관계, 맥락을 의미(p.115)
-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신장 및 주어진 상황 이해(p.122)
-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나 주제를 다루어야 함(p.125)
- 영어수업의 구현은 상황과 목적 중심(p.131)
-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은 실생활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모의 활동이 필요(p.152)

이를 종합하여 보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은 소재와 주제뿐 아니라 상황이라는 개념도 말과 글의 분류에 있어 주요한 준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범주화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연계성 논리가 되는 Estaire와 Zanon(1994)이 제안한 주제 생성자(thematic generator)의 근접 동심원 원리에서도 주제뿐만 아니라 상황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동심원 원리에서는 상황 및 주제, 의사소통 기능으로 구성한다. 상황을 중심으로 보면, 그 하위 영역은 일상생활 관련 상황, 학교생활 관련 상황, 사회생활 관련 상황, 직장생활 관련 상황, 문화생활 관련 상황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동심원 원리의 상황이 2014 수능체제의 분류 및 그 하위 영역 범주화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실용영어 상황인 여행이나 여가 생활에서 역사적 사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소재로 분류할 때는 기초학술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역사적 일화, 특정 유명 도시의 주요 관광지 소개 혹은 그 유래 등이 학문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중심이 되어 실용영어로 분류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분류 준거와 관련된 상황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능 문항 지문에도 포함되어 있는 여행 상황에서 접하는 여행 안내자의 설명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혹은 여행과 여가 생활 중 자주 접하는 사물에 대한 역사적 일화를 읽기 문항의 지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실용영어의 ‘상황’을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회화교재에서 자주 사용하는 광화문이나 경복궁 등에 대한 소개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역사적 사실의 연대기적 기록으로 분류하여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학술영어로 분류한다면, 실용영어의 범위는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만일 소재적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역사’가 속한 인문과학 혹은 사회과학으로 분류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 즉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모든 면은 인문,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기초학술영어의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대로 상황이란 대화의 장소, 화자와의 관계, 맥락 등(p.115)을 의미하며, 장소와 맥락(p.115)이라는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일상생활 중 여행이나 여가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어로 분류가 된다. 단지, 그 상황에서 사물이나 인물의 묘사나 설명 내용의 성격이 인문·사회·경제·문화·예술 등 학문적 기반에 필요한 영어(p.175)에 해당하면 기초학술영어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 대화나 담화에 대한 이해와 표현능력의 측정함에 있어 주제(topics)와 아울러서 상황의 개념이 중요시된다고 한 맥락과도 일치한다(김진석, 2009).

그리고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 개념에 대한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ummins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과 학문인지적 언어능력에서도 상황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으며, 사회적 영어(social English)와 학업영어(academic English)로 구분한 Colorado(2007) 또한 영어 능력 구분에 있어 상황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영어 학습을 하는 목적을 크게 일반목적(General Purposes), 특수목적(ESP),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s)으로 구분한 Johns와 Dudley-Evans(1991)의 세부 분류 중 특히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s)의 영어가 상황 중심이라는 것을 보아도 실용영어에서의 ‘상황’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 상황의 실용성 문항의 예시

상황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실용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문항의 예를 들면 2007학년도 수능 44번 문항으로서, 그 내용은 London Bridge 이야기인데 1960년대에 버스나 트럭 등으로 인하여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런던 다리를 아리조나로 옮겨가게 되어 현재 아리조나의 명물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담고 있다. 본 문항에 대한 상황의 실용성이란 일반인들이 여행이라는

상황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여행 안내 책자, 관광 안내인의 설명 등에 해당하며 유사한 문항의 예시는 아래의 표 7에 제시한다.

표 7
상황의 실용성 적용 문항(예시)

번호	학년도	문항번호	내용	분류	실용/학술	재분류 근거
①	2007	44번	런던다리 이동 - 명물된 이야기	일반사회	기초학술	상황의 실용성
②	2008	36번	Ravello 시 설명	일반사회	기초학술	상황의 실용성
③	2009	43번	투우 축제분위기 도시 설명	일반사회	기초학술	상황의 실용성
④	2010	37번	Chattanooga 도시 설명	일반사회	기초학술	상황의 실용성
⑤	2012	20번	물건 빠뜨린 화물선 이야기	일반사회	기초학술	상황의 실용성

전체적으로 보아 상황의 실용성이 적용되는 문항은 현재의 분류체계상으로 일반사회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사회는 가장 광범위한 소분류 항목, 즉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따라서 여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유적지나 관광지의 사물과 인물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 설명 등을 비롯하여 유명 도시의 묘사 등이 포함된다.

①번은 소재 중심의 현재 분류상 역사 혹은 사회가 속하는 기초학술영어가 되나, 여행상황에 적합한 지문으로 상황의 실용성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용문의 범주는 여행에서 길을 묻거나, 물건 사기, 혹은 표 예약 등 지극히 한정된 기초영어만 실용영어로 분류될 뿐이고 여행 중 다양하게 마주치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안내문이나 여행안내자의 설명 등은 모두 기초학술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역사적 유물과 유적에 대한 역사적 기록 내용이 실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의 깊이에 기초하여 실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②번 역시 여행지 설명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 유적 등에 대한 설명이며, ③번 또한 여행상황 중 접할 수 있는 도시의 특징, 즉 투우로 인하여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관광 목적으로 많이 모인다는 내용이며 ④번도 마찬가지다. ⑤번의 경우도 그 내용이 역사적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한 안내 책자나 가이드의 이야기에 나올만한 매우 쉬운 내용으로, 상황적 실용성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실용과 기초학술영어 범주의 명세화 필요성

(1) 영역 명세화 필요성 논의

2014 수준별 영어시험에서 제시하는 실용과 기초학술영어의 범주화된 영역은 국가교육과정의 소재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는 앞 장에서 제시된 대로 먼저 실용영어영역은 ‘교통, 통신, 쇼핑, 주거, 식당, 병원, 미용실 등 일상에 관한 내용’, ‘교통편 예약, 기차, 공연, 전시회, 스포츠, 취미, 요리, 호텔, 공공장소 등 여행. 여가에 관한 내용’, ‘수업, 교우관계, 생일 파티, 졸업, 상담, 과제, 시간표, 도서관, 시험, 성적 등 가정. 학교에 관한 내용’, 및 ‘서식, 문서작성, 채용, 급여, 마케팅, 안내 및 공지, 광고, 매뉴얼 등 직업.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으로 기초학술영어영역은 ‘문화, 공중도덕, 질서의식, 민주시민, 봉사정신, 협동정신 등에 관한 내용’, ‘노동, 직업, 진로, 양성 평등, 고령화, 복지,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등에 관한 내용’, ‘예술(음악, 미술, 건축 등), 문학, 인류학, 철학 등에 관한 내용’, ‘과학, 기술, 컴퓨터, 정보통신, 우주, 해양, 환경, 탐험 등에 관한 내용’, 및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실용과 기초학술영어의 명세화가 필요한 주요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가교육과정문서에서는 실용과 기초학술영어를 따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4 수능체제에서는 교육과정의 소재를 분석하여 요약적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따라서 요약된 표에 속하는 영역의 소분류 예시들이 다양한 지문들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이 어느 영역에 속할지 판단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가장 광범위하게 지문을 수용할 수 있는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 혹은 자연과학 전반을 모두 포괄하는 ‘과학, 기술, 컴퓨터, 정보통신, 우주, 해양, 환경, 탐험 등에 관한 내용’ 영역에서 수용한 결과 실용문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학술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실용문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실용지문이 속할 영역을 찾지 못하여 실용문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두 번째, 소재를 중심으로 한 2014 수능 분류체계에서 실용영어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기초학술영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중도덕이나 질서 의식, 봉사나 협동 정신 혹은 근검절약에 관한 내용까지 현재는 기초학술로 분류한 것은 ‘일상생활’을 근거로 실용영어개념을 도입한 2014 수능 도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공중도덕’ 역시 내용의 깊이와 학문성의 유무에 따라 기초학술영어인지 실용문인지 판단해야 하겠지만 실용영어소재에 대한 지나친 축소해석 또한 분류체계자체의 명세화가 필요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문항제작자, 교과서나 교재 개발자, 혹은

2014 수능체제에 따른 영어평가관계자들이 실용영어인지 기초학술영어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영역의 명세화가 필요할 것이다.

(2) 실용과 기초학술영역 명세화 문항의 예시

실용과 기초학술영역 명세화를 바탕으로 하여 실용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문항의 예를 들면 2008학년도 수능 31번 문항으로서, 동양 사람들은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의 표현방식과 그렇지 않을 때의 얼굴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지문에 담고 있다. 동서양 혹은 나라간의 감정표현의 차이는 문화에 해당하고, 우리 문화와 타문화 등이 현재의 분류상 기초학술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사소통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도움이 되는 문화적 내용은 ‘문화생활’ 등의 이름으로 분류되어 실용문으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는 현대생활 영위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바탕이며, 실용적 삶에서 타인의 이해에 필요한 생활 문화는 국제화 시대의 필수 요소여서 현재의 영어과 교육과정 중 실용을 중시하는 영어회화 과목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분류상 문화로 분류되어 기초학술영어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을 명세화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문화’, 혹은 ‘문화생활’ 등으로 실용문의 범위를 확장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모든 문화 관련 지문을 기초학술영어로 분류할 경우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문화적 내용이 담긴 지문은 기초학술영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용과 기초학술의 명세화가 필요한 문항의 예시는 아래의 표에 제시한다.

표 8
영역 명세화 적용 문항(예시)

번호	학년도	문항번호	내용	현재 분류	실용/학술	재분류 필요성
①	2005	18	재충전 전지의 의인화	?	?	영역 명세화
②	2005	19	인터뷰 내용	?	?	영역 명세화
③	2008	31	감정표현 방식 차이	문화	기초학술	영역 명세화
④	2009	42	여러 물건의 꽃병 활용 방법	?	?	영역 명세화
⑤	2010	49	현재에 충실한 생활	문학	기초학술	영역 명세화

실용과 기초학술영어의 명세화 적용 필요성은 현재 범주화된 하위 영역과 소분류에 대한 조절을 통하여 실용문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문항에 해당한다. 현재의 실용문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중분류나 소분류 항목을 찾지 못하여 발생하는 애매성은 문항제작자간, 교재집필자간, 혹은 교재검정심사자간 적용상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문항 지문의 내용은 전지를 항상 재충전해 두면 아침에 면도를 빨리 할 수 있고, 텔레비전 이용이 가능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등으로 재충전 전지를 1인칭으로 의인화하였다. 현재의 분류에서 해당되는 실용문의 하위 영역을 찾기가 힘들다. 가장 관계 깊은 영역을 찾아보면 ‘교통, 통신, 쇼핑, 주거, 식당, 병원, 미용실 등 일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지만, 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본 문항이 해당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 등으로 추가적 범주화 혹은 명세화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일상적 생활 속의 사물에 대한 묘사, 사물의 기능 등이 실용문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④번 문항 역시 생수병, 우유병, 식용유병, 혹은 찻잔 등을 꽃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주 접하는 사물의 활용에 대한 지문이어서 당연히 실용문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현재의 분류상 적합하게 해당하는 영역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문항 ①번과 같은 영역 명세화가 필요할 것이다. 문항 ③번 문화 관련해서는 본 절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다. 문항 ⑤번은 지문의 성격이 수필이다. 해변을 산책하는 중에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 ‘삶’이라는 어휘 그리고 ‘현재와 미래’ 등의 어휘로 인하여 철학적 내용의 지문으로 현재의 분류로 보면 기초학술문에 해당한다. 수필 자체도 문학에 해당하여 기초학술어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활(삶)에 대한 단상적 면은 일기글과 비슷하여 실용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의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한 경수필(미셀러니)는 실용으로, 중수필(에세이)은 기초학술로 분류하여 영역의 명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필이 모두 문학으로 분류되어 기초학술어가 된다.

마지막으로 ②번 문항 지문의 내용은 방송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다소 황당한 일화를 소개한 글로써, 역시 일상생활 중의 ‘사회생활’ 혹은 ‘직장생활’로 영역 명세화가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서는 역시 수능 기출문항인 라디오 인터뷰 내용(2007학년도 28번 문항 참조), 직장에서의 해고와 우정 이야기를 다룬 내용(2012학년도 19번 문항 참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영역의 명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분류에서는 적합한 영역을 찾기가 힘들다. 현재의 분류에서 가장 적합한 영역은 ‘서식, 문서작성, 채용, 급여, 마케팅, 안내 및 공지, 광고, 매뉴얼 등 직업. 업무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는 현재까지의 수능에서 ‘듣기’에서의 대화나 담화, 혹은 ‘읽기’에서 ‘글의 목적 문항 유형’으로 공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할 때 사용했던 영역이다.

따라서 상기한 문항 지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직장생활’ 혹은 ‘사회생활’ 등으로 영역의 명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4학년도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서의 중요한 개념인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에 대한 현재 분류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 수능시험체제가 시작된 2005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의 본수능 문제 중 읽기 영역 264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각 학년도별 33개 문항씩 총 264개의 문항 중 실용영어는 33문항, 그리고 기초학술영어는 231문항으로 약 1:11의 비율로 나타났다. 현재의 수능체제의 출제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교육과정에서는 실용적 정보 및 인문,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의 학문적 정보를 골고루 포함한다. 그럼에도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비율의 불균형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국가교육과정과 문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실용과 기초학술문을 고루 다루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실용과 기초학술문에 대한 준거는 소재뿐만 아니라 주제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었다. 즉, 2014 수준별 수능에서의 실용과 기초학술문의 준거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체계상의 소재를 중심으로 실용과 기초학술문의 분류 준거로 삼았고, 국가교육과정 문서 체계상의 목표나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주제는 소재 속에 포함하는 관계로 해석하여 2014 수준별 수능 시험의 주요 분류 준거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2014 수능에서의 실용과 기초학술영어의 준거가 되는 소재 분류에서 소재의 영역별 범주들이 명세화되지 않아 문항의 지문이 속할 범주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교육 등에 관한 내용’ 혹은 자연과학 전반을 모두 포괄하는 ‘과학, 기술, 컴퓨터, 정보통신, 우주, 해양, 환경, 탐험 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영역에 포함되고, 이 영역은 기초학술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용문 문항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실용과 기초학술문 분류 준거로서의 ‘주제’, 그리고 ‘실용과 기초학술문 분류 준거로서의 ‘상황’, 마지막으로 ‘실용과 기초학술영어 영역의 명세화’라는 측면에서, 2014 수준별 수능의 분류체계에 대한 명시성과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소재와 더불어 주제의 실용성을 실용과 기초학술문의 준거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주제의 실용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 화제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다.

둘째, 소재 및 주제와 더불어 상황의 실용성을 실용과 기초학술문의 준거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상황의 실용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대화나 담화의 장소, 화자와의 관계, 맥락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상황 뿐 아니라 여행이나 여가 등의 상황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셋째, 소재와 주제 및 상황의 실용성을 실용과 기초학술문의 준거로 도입하는 방안과 아울러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에 대한 영역의 명세화를 제안한다. 영역의 명세화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지문의 성격상 당연히 실용문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문이 속할 영역이 명시적으로 범주화되지 않아서 실용문으로 분류되지 못하여 분류의 애매성이 발생하는 내용들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인 소재, 주제의 실용성, 상황의 실용성, 그리고 영역 명세화를 준거로 하여 구체적인 소분류 상세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분류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2014 수능 체제의 A형과 B형 영어시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실용영어와 기초학술영어의 분류가 명확해질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개발자나 교재집필자에게 명확한 출제 지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국 수능 응시생 및 영어교사들이 올바른 정보로 영어 교수·학습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a). *교육인적자원부 제 1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11)*.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b). *외국어과 교육과정(1)*.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외국어과 교육과정(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방안*.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영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4학년도 수능 개편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1.27.
- 김용명. (2010).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문항 유형의 개발과 선별 원리 및 검사지 구성의 원칙. *영어교육*, 65(4), 313-342.
- 김진석. (2009). *영어과 교육과정 및 평가*. 서울: 한국문화사.
- 이흥수. (2011). 중등학교 영어교과서 내용구성을 위한 학습모형. *영어영문학* 21, 24(2), 161-193.
- 장경숙, 정규태, 이병천. (2011). 2009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영어과 기본 어휘 목록 및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현대영어교육*, 12(2), 190-21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a). 2014학년도 수능시험개편에 따른 과목별 문항개발 및 시행준비를 위한 기초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11-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b). 영어과 교육과정과 국가영어능력평가지험 연계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11-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Bach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Designing and developing useful language te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G., & Yule, G.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orado, C. (2007).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and academic English? Retrieved December 12, 201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olorincolorado.org/edua>.
- Cummins, J. (1981). *Empirical and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bilingu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163, 16-29.
- Ellis, R.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staire, S., & J. Zanon. (1994). *Planning classwork: A task based approach*. Oxford: Heinemann.
- Ibrahim, A. I. (2010). ESP at the Tertiary Level: Current Situation, Application and Expecta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3(1), 200-205.
- Johns, A. M., & Dudley-Evans, T. (1991).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International in scope, specific in purpose. *TESOL Quarterly*, 25(2), 297-314.
- Widdowson, H. G. (1998). Communication and community: The pragmatics of 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7(1), 3-14.
- Zohrabi, M. (2010). A new outlook on EAP literacies: General and specific English territories.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14(2), 165-186.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이병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784 서울시 중구 정동길 21-15
 Tel: (02)3704-3956/ H.P.: 010-2574-1180
 Fax: (02)3704-3954

Email: bclee@kice.re.kr

Received 10 December 2012

Revised 29 January 2013

Accepted 15 February 2013